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옥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동의 도구와 행위에서 나타나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공미술학과

박 현 철

노동의 도구와 행위에서 나타나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장 욱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공미술학과

박 현 철

인 준 서

박현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정정근



심사위원

김성복



심사위원

장우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노동 행위의 아름다움과 노동 활동을 주제로 한 예술 형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노동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예술 형태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를 토대로 노동 행위를 통한 시각적 결과물의 가치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노동 행위를 통한 시각적 결과물은 노동자의 손끝에서 비롯되며, 이는 농부의 작물 수확에서부터 기술자의 목재 가공, 예술가의 그림 그리기, 건설 노동자의 건물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자는 부모가 농업을 하면서 얻은 미감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세계를 통해 단순노동의 반복적인 행위와 도구의 변화, 사용자의 변형 그리고 자연발생적 형태에 주목합니다. 이를 통해 움직임이 있는 작품과 노동자의 직접적인 도구 형태로 나타나는 리얼 오브제 작품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석사 청구전에 출품한 작품을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연구의 본론으로서 첫째, 둘째 등 여러 측면에서 노동과 도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형태와 기능의 유기적 관계	4
2) 반복적행위	5
2. 작품표현방법	7
1) 리얼오브제	7
2) 단순반복운동	8
3. 작품분석	10
III. 결 론	22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workers' tools 1	
철, 나무 150x15x3cm, 2023	10
【작품 2】 workers' tools 2	
의자, 저속모터, 스탠드 조명, 와이어, 150x35x35cm, 2023	12
【작품 3】 workers' tools 3	
쌀, 저속모터, 나무갈퀴, 가변설치, 2023	14
【작품 4】 workers' tools 4	
페인트통, 롤러, 저속모터, 25x35x25, 2023	16
【작품 5】 workers' tools 5	
돋보기, 석고붕대, 끈, 145x20x130, 2023	18
【작품 6】 workers' tools 6	
얇은뱅이 방석, 25x25x25cm, 2023	20

I. 서론

노동은 우리 삶과 사회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 탄생했고, 노동 행위 자체가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노동을 예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예술가로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작품을 전시하며, 내가 하는 예술이 진정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자의 도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탐구하고 시각적 결과물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자의 부모님은 농업 종자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육체노동이 수반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의 강도는 감소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구의 활용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도구를 만드는 것은 작용 수단으로써 인간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자신의 몸, 특히 손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 소재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돌과 나무를 사용해온 시대부터 현재 그리고 향후 미래까지 도구의 구조와 형태는 변해 왔지만 고유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들이 사용한 평범한 노동 도구는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오브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살아갑니다.

이 연구는 노동 행위, 도구의 미 그리고 노동과 예술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고 노동의 가치와 예술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도구를 주제로 한 시각적 결과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며,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예술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이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가정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자신이 예술 활동을 이어 오기 위해 노동행위를 해오면서 인간의 도구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며 단순노동 행위와 노동자의 도구에 대한 더 깊은 탐구에 관한 강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배경의 방향성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에서 나의 시간, 능력을 내어주고 일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자본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인간의 도구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지만, 연구자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발생했던 감정이 작품에 발현되는 배경의 한 꼭지를 차지합니다.¹⁾

두 번째, 본인의 부모가 농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 가령, 어머니가 30년 동안 사용 중인 삽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추어 재단하고 단단한 나무로 손잡이를 교체하여 사용한 삽. 하지만, 연구자는 그 삽을 보면서 시간이 축적되어 녹슬고 닳은 형상을 보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무언가, 진정성 없고 시각적 유희를 위해 만들어낸 허구로 인식되면서 작가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²⁾

1) 시라이 사토시, 『삶의 무기가 되는 자본론』, 오시연, 웅진지식하우스, 2021, p.88

2) 쇼펜하우어,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박제현, 페이지2북스, 2023, p.27

세 번째, 노동자의 도구는 조각가, 무언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을 배워온 본인으로서 바라볼 때 어설피거나 어눌하게 물성의 유형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주변에 있으니까 혹은 알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잡히는 대로 즉흥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며 엉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의 도구에는 기능적 요소와 알 수 없는 조형성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³⁾

1) 형태와 기능의 유기적 관계

연구자의 근원적 미감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자아를 깊게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과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오브제와 아름다움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도구는 사용자의 편리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물체이며, 초기 형태에서 사용자에게 알맞게 변형되는 과정은 형태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⁴⁾

예술가의 작품은 종종 아름다움이나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철학적인 가치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모방이나 단순한 흉내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태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아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무한한 아름다움보다는 본인의 삶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진정성과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능, 조형언어, 형상을 깊게 이해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

3) 마르셀 뒤샹, 『예술을 부정한 예술가』, 김광우 옮김, 미술문화, 2019, p.10

4) 윌리엄 제임스,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 정유경 옮김, 갈무리, 2017, p.200

다. 니체가 언급한 '힘의 의지'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깊이 있는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리얼리티가 녹아있는 것을 추구하며 내면에서 에고를 발굴하는 과정은 광산에서 원석을 채굴하듯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아의 미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공간에서 비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인간의 행동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본인의 미감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기억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⁵⁾

평범한 삶을 살아온 본인은 불필요한 과장보다는 존재 그대로를 강조합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시각 언어를 과장하는 대신, 일상의 현상이나 행위를 기반으로 작업을 현상화합니다.

2) 반복적 행위

작품은 노동자의 도구를 전시장으로 가져오거나 특정 노동 행위를 포착하여 움직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먼저, 실제 노동자의 도구를 오브제를 잠시 빌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럴듯한 구현은 작가가 이미지를 흉내 낼 수 있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실체는 존재하지만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빙 오브제는 반복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오브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 과부하로 인해 변형되거나 파괴됩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순환되며 순간 혹은 찰나들이 모여

5) 박찬국 지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p.95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이 혼재하는 것입니다.

멈춰있을 때나 움직일 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선상에 존재합니다. 이는 상대성 이론의 시각에서 두 상태 간의 연결과 변화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은 노동의 풍부한 경험과 상대성을 연결 지어 보여주고자 합니다.

반복운동으로 여겨지는 행위는 본인의 실재이며,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같은 궤적으로 혹은 힘으로 움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행위는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반복 속에도 끊임없는 차별성과 특이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노동의 행위가 풍부한 경험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노동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이미지를 통해 노동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노동의 행위가 다양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노동의 다면성과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작업 방식은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을 통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각 개인이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유와 책임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작가는 노동의 단순한 행위를 통해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노동이 가지는 본질적 실재와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2. 작품 표현 방법

1) 리얼오브제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20세기 미술과 21세기 미술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예술의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져왔습니다. 현대 전시장에서는 레디메이드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정크아트, 아상블라주,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해프닝이나 퍼포먼스 등도 일종의 레디메이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디메이드의 개념은 마르셀 뒤샹이 자전거 바퀴, 소변기, 눈삽 등을 미술품으로 채택한 것에서 확장되었습니다. 뒤샹은 레디메이드를 선택한 계기로 무료함을 꼽았습니다. 그는 내러티브가 없는 그림은 단순한 유희에 지나지 않아 경멸하였으며, 변기를 '〈샘〉'이란 제목으로 출품한 것은 미술의 본질을 확정하고자 상징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의 철학과 아이디어가 미술 자체라는 뒤샹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가 본인은 무언가를 창작해 내야 한다는 강박, 관성적으로 익숙한 물성에 의존하는 대신, 일상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작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현기법으로 '리얼+오브제'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리얼'은 말 그대로 현실과 실재를 의미하며, 진정한 사물(도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물은 노동자가 오랜 시간 사용한 도구를 지칭하며, 반복적인 노동 행위를 통한 사물의 기능에 따른 형태의 변형에 집중하여 바라봤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삶에서 큰 영감을 받아 작품의 상징물로 활용합니다. 사물을 단순히 화이트큐브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사용된 도구는 진정성을 갖춘 리얼 오브제로써 표현합니다.

이 작업은 예술 논문의 표현 방식, 어법, 문법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작품 1'과 '작품 6'은 리얼 오브제로 명명되어 전시되며, 이를 통해 사물을 그대로 전시장으로 가져와 작품으로써 관객에게 제시합니다.

1) 단순반복운동

칼 마르크스는 “노동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의 한 과정이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라는 말로 노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원시시대에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채취하거나 사냥,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사회의 초석이었고, 농업은 육체노동의 시작이자 근대산업사회와 현대 디지털 노동으로 이어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을 주요 주제로 삼아, 노동 행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설계했습니다. 키네틱 아트(Kinetic Art)는 ‘동작’을 의미하는 ‘kinesis(=movement)’와 ‘Kinetic(=mobil)’이라는 그리스어 어원에서 파생된 용어로, 물리적 법칙과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키네틱 아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력 장치를 활용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버려진 나뭇조각, 끈, 케이블 타이, 테이프 등을 주된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높은 완성도보다는 어설피게 만들어진 노동 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터를 이용한 단순 운동을 노동 행위로 연결시켜 관람자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단순노동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해 전시 도중 해체되거나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된 작품 표현의 한 부분으로, 완벽하지 않음과 안정성 부족이라는 움직임들 통해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⁶⁾

6) 쇼펜하우어,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박제현 옮김, 페이지2북스, 2023, p.27

3. 작품분석



【작품 1】 workers' tools 1

연도: 2023

크기: 150x15x3cm

재료: 철, 나무

제작방법

1. 실제 어머니가 사용한 삽

작품설명

연구자는 어머니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한 삽을 작품의 중심으로 삼아 그 삽이 지닌 진정성과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사용하며 가족과 자신의 삶을 뒷받침해온 이 삽은 흔하고 일상적인 도구일지라도, 연구자에게는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작품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의 노동을 통해 얻어진 미세한 흔적과 변화를 통해 삽이 가진 고유한 예고와 노동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삽은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농사일과 노동의 결과물로서 어머니의 손끝에서 나온 것으로서 만큼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낡음과 닳음은 이 도구가 겪어온 시간을 담아내어 훼손이 아닌 오히려 도구의 특유한 성격과 역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작품은 표면적인 외관을 넘어 시간과 경험에 의해 부여된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근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품 2】 workers' tools 2

연도: 2023

크기: 150x35x35cm

재료: 의자, 저속모터, 스탠드 조명, 와이어

제작방법

1. 스탠드 조명의 갓 부분을 분해한다.
2. 의자에 스탠드 조명을 고정하고 베어링을 활용하여 회전운동을 상하운동을 전환한다.
3. 모터와 입력전원사이에 컨트롤러를 연결 후 실행한다.
4. 타이머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에 작동하게 조절한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연구자 본인의 경험과 삶에서 나온 작업입니다. 예술 활동을 위해 다양한 생계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도구화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회전운동과 상하운동을 통해 허공에 사포질을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작업은 자신이 경험한 생계활동에서 주로 볼 수 있거나 연구자 본인이 해왔던 노동 행위를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작품 3】 workers' tools 3

연도: 2023

크기: 가변설치

재료: 쌀, 저속모터, 나무갈퀴

제작방법

1. 나무프레임을 T자 형태로 만들어준다.
2. 나무프레임에 모터를 고정 후 나무갈퀴를 부착한다.
3. 모터와 입력전원사이에 컨트롤러를 연결 후 실행한다.
4. 타이머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에 작동하게 조절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과거의 농업 방식에서 사용되는 벼의 말리고 펼치는 반복된 행위를 모터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작업 초기의 목표는 농업 활동을 현대 기술로 해석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나무 갈퀴에 의한 자연발생적 시각언어가 중심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형상은 자연형태의 발생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나무 갈퀴가 벼를 모으면서 형성되는 모습은 자연의 무작위 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예상치 못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작품 4】 workers' tools 4

연도: 2023

크기: 25x35x25

재료: 페인트통, 롤러, 저속모터

제작방법

1. 페인트통에 타공을 한뒤 모터를 부착한다.
2. 모터와 입력 전원 사이에 컨트롤러를 연결 후 실행한다.
3. 타이머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에 작동하게 조절한다.

작품설명

이 작업은 연구자 본인의 경험이 직, 간접적으로 투영된 작업입니다. 다양한 생계활동을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하면서 인간의 도구화를 감지하게 되어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회전운동과 상하운동을 통해 바닥에 무한히 페인트칠은 합니다. 작업은 자신이 경험한 생계활동에서 주로 볼 수 있거나 연구자 본인이 해왔던 노동 행위를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작품 5】 workers' tools 5

연도: 2023

크기: 145x20x130

재료: 돌보기, 석고붕대, 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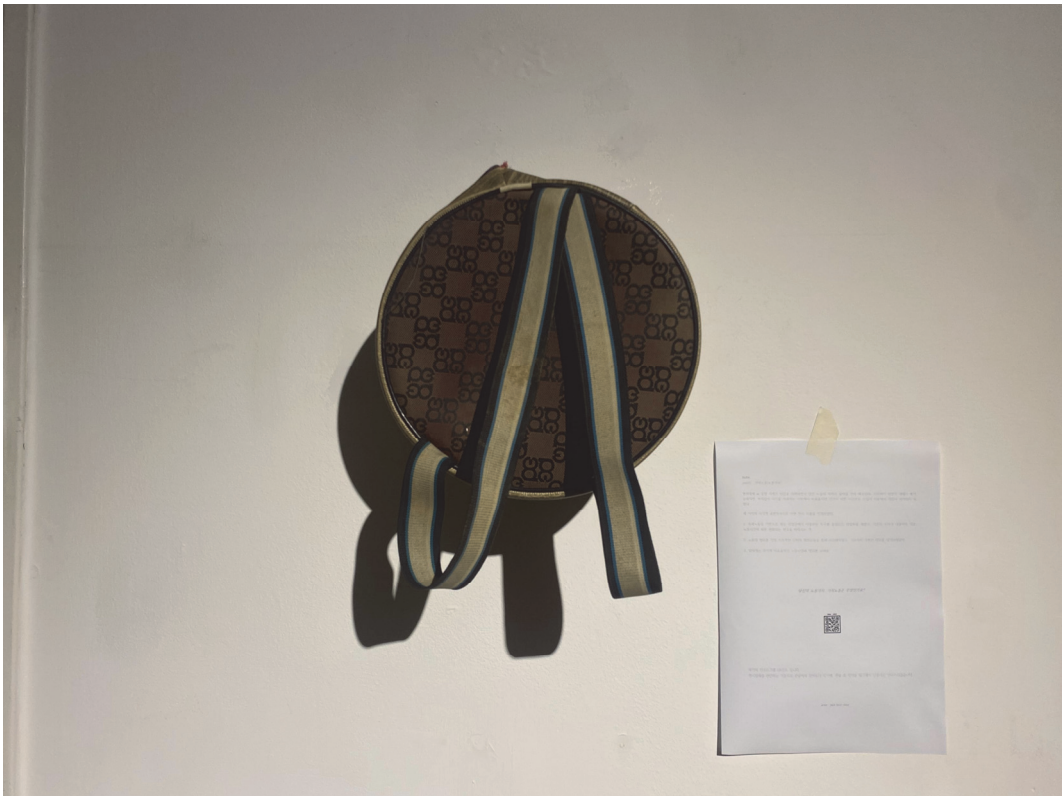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철제 뼈대를 제작한다.
2. 철사, 끈을 활용하면 뼈대에 묶으면서 면을 만들어준다
3. 석고붕대를 물에 넣어 녹여준 뒤 뼈대를 가리면서 전체를 감아준다.
4. 석고가루를 물 녹여 붓을 활용해서 작품 전체 도포한다.
5. 돌보기를 작품 전면부 상단에 피스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6. 작품 상단에 몇 개의 쌀알을 올려놓는다.

작품설명

쌀알 분리 도구는 현실적인 농업 용도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도구는 부적절하게 크고 불편한 디자인으로 농업의 실질적인 용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쌀알 추출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예술은 경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며, 존재적 가치에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작업이며 또한, 도구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불일치는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 형태와 크기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이 도구는 주변의 간과된 객체로 여겨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를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품의 이면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반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품 6】 workers' tools 6

연도: 2023

크기: 25x25x25cm

재료: 앓은뱅이 방석

제작방법

1. 실제 농업종사자가 사용하는 앓은뱅이 방석

작품설명

고유한 기능성을 발휘한 이 도구는 사용자의 행위가 도구에 시간성을 부여하고 형태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지속된 사용과 변화는 초기의 기능과 형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앓은 부분은 사용자의 몸에 맞게 형성되어 사용자의 행위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는 고유한 기능과 형태를 상실하면서 알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방석이 어머니의 삶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작품의 소재와 표현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경험의 기억을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주관적 경험의 연속이며 이러한 경험은 주변 환경과 각자의 관점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경험을 내포하고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부모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동과 환경을 주요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작품은 리얼 오브제와 행위 패턴을 통해 노동의 흔적을 움직임이 있는 형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작가의 주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들이 공감하고 유추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보다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동의 행위를 통한 근원적인 미감을 추구하며 물성에 대한 고찰이나 미적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본질적인 미감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의 표면을 넘어 본질의 영역으로 시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은 삶에 깊게 파고 들어가 근원적 미감을 찾는 과정과 작업의 자아가 발현되는 점을 고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본질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작품의 깊이와 의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노동의 현실성과 본질을 더욱 강조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시라이 사토시, 『삶의 무기가 되는 자본론』, 오시연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21
- 쇼펜하우어,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박제헌 옮김, 페이지2북스, 2023
- 마르셀 뒤샹, 『예술을 부정한 예술가』, 김광우 지음, 미술문화, 2019
- 윌리엄 제임스,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 정유경 옮김, 갈무리, 2017
- 박찬국 지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 윤난지 지음, 『현대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2005

《참고논문》

- 김효선, 『레디메이드 오브제의 관계성을 통한 레디메이드 아트 확장 가능성 연구 : 『idols展: 아이들 없는 아이들 전시』. 2021
- 손英柏, 『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 미술사연구회, 2009
- 임정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 후기 엥겔스 문제와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가능성』, 2022

《학술저널》

- 이민화,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한구노동연구원, 2016
- 피에르 부르디외 이상길, 『(연세대학교)상징자본과 사회계급』,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21권 2호, 2012

- 정강산, 『절대자본주의와 미술 : 불안정의 정동, 카지노, 신생공간, 예술노동』,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2022년 겨울호 (통권 제112호), 2022
- 조광석, 『뒤샹의 작품 샘(Fountain)에서 제기하는 해체의 의미와 영향』,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홈페이지 및 기타》

-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2023년 12월 7일 접속,
<https://blog.naver.com/iunggc/221795059596>
- 도구사용, 지식백과, 2023년 12월 7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24595&cid=60261&categoryId=60261>
- 키네틱 아트, 2023년 12월 7일 접속,
<https://brunch.co.kr/@kimheedae/46>

ABSTRACT

The Study Of Expressions In The Tools And Behaviors Of Labor

Park hyun cheol
Public Art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This thesis focuses on the beauty of labor behavior and the art form under the theme of labor activity. Lab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life while inspiring historically diverse art form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plore the value of visual outcomes through labor behavior. The visual outcomes of labor action come from the fingertips of the workers, which are associated with different forms of labor, from harvesting crops by farmers to processing wood by engineers, painting by artists, and building by construction workers. In particular, this researcher began research based on the aesthetics gained by parents while farming.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petitive behavior of simple labor, changes in tools, user transformation, and spontaneous forms throughout the world of one's work.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ndu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real object works that appear in the form of moving works and direct tools by workers.

Specifically, the thesis was organized around the works submitted to the 2023 master's claim. Chapter 1 describes in detail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the research of one's work, and Chapter 2 explores various aspects of labor and tools in various aspects, such as first and second, as the body of the study. In addition, Chapter 3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e thesi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